

계룡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김 용 현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위원
kyhyun363@cni.re.kr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복지재단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출현한 복지재단 설립이 증가일로에 있는 만큼 계룡시 차원에서 사회복지 전문기구(계룡시 복지재단) 설립을 통한 사회복지 정책의 전문성 확보 및 계룡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제고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CONTENTS

<요 약>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계룡시 사회복지 환경 변화
3. 타 지역 복지재단 운영 및 성과
4. 계룡시 사회복지종사자 인식조사
5. 계룡시 복지재단의 기능과 설립의 장단점 분석

요약

- 매년 지방자치단체 출현 복지재단이 증가일로에 있으며 그 역할과 기능 또한 이전 시기보다 확대되고 있음
- 2024년 3월 기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된 복지재단은 45개소로 광역자치단체에 4개소(서울, 경기, 부산, 경북), 기초자치단체에 41개소가 있음
- 충남도는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에 각각 1개소의 복지재단이 있음
- 복지재단이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여 다양하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법인이며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최근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 설립이 증가한 이유로는 지방분권화 이후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며 지역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배경이 있음
- 계룡시 역시 다양해진 복지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기구(계룡시 복지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음
- 연구의 결과로 계룡시는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의 3가지 주요 기능인 사설운영, 모금 및 배분, 연구사업을 복지재단을 통하여 수행하기보다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기존 사회복지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0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복지재단이 증가하고 있음
 - 매년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증가일로에 있으며 그 역할과 기능 또한 이전의 시기보다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지역복지재단의 증가는 2010년 이후 설립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2022년 3월 기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된 복지재단은 45개소로, 광역자치단체에 4개소(서울, 경기, 부산, 경북), 기초자치단체에 41개소가 있음(신선웅, 2024)
 - 충남은 3개의 복지재단이 있음 : 천안, 당진, 서산시 등에 있음. 광역자치단체 복지재단은 사회서비스원 개소와 더불어 통합되어 그 숫자가 축소되었지만,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은 광역의 그것을 압도하고 있음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재단 설립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 두 가지임

1) 지방분권화와 지자체의 역할 증대

- 지자체장의 직선제를 계기로 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됨
 -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 주민의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 기회 확대,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기대수준 증대 등 사회복지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김승권 외, 2012)
-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분권화는 지역별 맞춤형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역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충청남도, 2015)
 -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사회적 인프라와 재정적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일부 지자체 사회복지재단의 설립 배경이 되었음(충청남도, 2015)

2)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강화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 간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을 연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적 체계임(전광현, 2013)
 - 서비스 제공 책임자는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검토하여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관리·공유해야 함(충청남도, 2015)
 -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여러 전문가와 연계·협력할 필요가 있음(충청남도, 2015)
- 민·관 협력의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당면과제는 ‘어떻게 다양한 주체들과 민주적이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음 (충청남도, 2015)
 - 지역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민과 관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복지재단이 그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음

3)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 강화

-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 증가의 이유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중 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으로 해석됨
 - 기초자치단체들의 지역복지재단 증가의 원인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화, 지역 사회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부재 등에 기인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지자체 복지의 재구조화를 위해 복지재단 설립이 확대되고 있음
 -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복지재단이 증가하게 된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욕구의 대응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기초하고 있음(아산시, 2018)
 - 복지재단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지역의 복지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궁극 적으로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아산시, 2018)

2.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 = 지방자치단체+복지+재단
 - 지방자치단체 출연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연기관의 개념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출연기관이란 “ 「 지방재정법 」 제 17조 또는 각 개별법령을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선이나 장학 또는 문화에 예술 등과 같은 공익적 목적을 실행하는 기관에 설립 및 운영 자금을 제공한 기관”으로 설명하고 있음(행정안전부, 2013)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에 필요한 자금(돈)을 제공하는 행위하고 할 수 있음
 - 복지재단은 복지와 재단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의 개념

- 경험적으로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복지재단은 대부분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행복한 복지사회 조성 등을 설립목적이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이라는 기본 이념과 그 궤(軌)를 같이하는데 여기서 복지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사무범위로서의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보장기본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인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와 증진 그리고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이라는 과제를 공유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재단’의 개념

- 재단(財團)은 “기증(寄贈) 및 유증(遺贈) 등과 같은 영속적인 재산을 근거로 하여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단체를 조직하여 개방성과 독립성 등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부금 구축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문화되고 제도화된 자선을 실천하는 모험자본 성격을 갖는 기관”으로 정의되고 있음(신선웅, 2024)
- 우리나라의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그리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현실을 보았을 때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독립적 성격을 갖는 법인으로 법률관계의 처리와 책임이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복지재단이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여 다양하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법인이며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복지재단이 사법인으로 분류되고 있고 법제적 질의 결과도 민간조직으로 결론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당연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운영비는 매년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고 정기적으로 행정 사무 감사를 받는 현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관여에서 독립적이기 어려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음(신선웅, 2024)

○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

-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예산, 돈)을 내어 관련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통상적으로 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형태로 설립되는 기관’으로 정의 됨(신선웅,2024)

3.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상기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복지재단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계룡시 차원에서 복지재단 설립의 가능성과 장단점 등을 짚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아래와 같음

- 계룡시 사회복지 환경변화
- 다른 지역복지재단의 운영 및 성과
- 계룡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식조사
- 계룡시 복지재단의 기능설정 및 설립의 장단점 분석

02

계룡시 사회복지 환경 변화

1. 계룡시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1) 계룡시 사회복지 관련 통계

○ 계룡시 인구 현황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2024년 2월 현재 기준, 충청남도 계룡시 인구수는 46,800명임
- 여자 인구수는 23,406명이고, 남자 인구수는 23,394명으로 여자가 더 많음
- 계룡시의 지역별 인구분포는 엄사면, 신도안면, 금암동, 두마면 순으로 많음

○ 계룡시 재정자립도

- 계룡시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 37,185 백만 원으로 전국 115위임. 예산 규모는 199,1백만 원으로 자립도 18.67%임 (2023년 기준)

○ 계룡시 보건복지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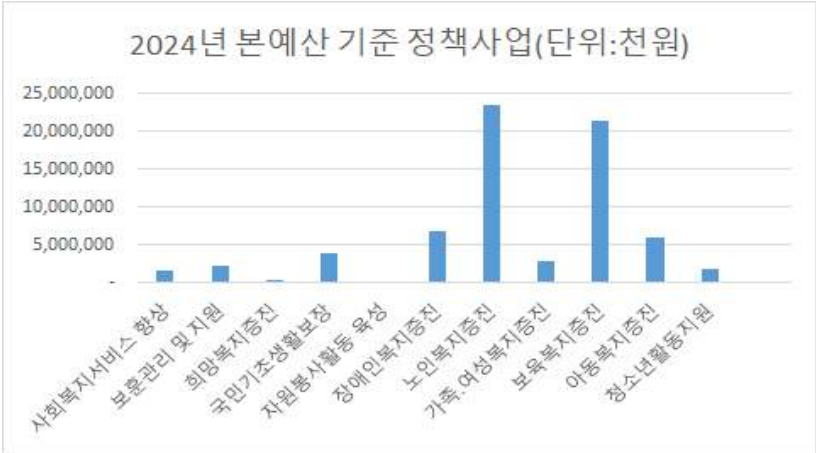
- 계룡시 보건복지 예산은 68,964 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4.62% 이며 이 중 사회복지예산은 64,3백만 원으로 32.29%이고 보건 예산은 4백만 원으로 2.33%임(2023년 기준)

○ 2024년 본 예산 기준 정책사업

- 본 예산 기준 정책사업은 노인복지과 보육복지 분야 예산이 압도적으로 많음

<표 1> 2024년 본예산 기준 정책사업

정책사업명	예산액(단위:천원)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1,720,566
보훈관리 및 지원	2,165,792
희망복지증진	452,535
국민기초생활보장	3,995,539
자원봉사활동 육성	136,587
장애인복지증진	6,739,909
노인복지증진	23,591,288
가족·여성복지증진	2,804,886
보육복지증진	21,366,664
아동복지증진	6,033,728
청소년 활동 지원	1,750,139



○ 계룡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 계룡시 사회복지시설 시설 수 및 수용인원(*여성복지시설 미집계)은 충남도 전체에 비해 열악한 편임
- 노인복지시설의 비율이 계룡시 시설 전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아동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이 전혀 없고, 장애인복지 시설도 1개소에 그치고 있음
- 그 밖에 부재한 사회복지시설로는 자활기관, 새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이 있음

2) 계룡시 사회복지 특성

○ 계룡시 사회복지 전반적 특징

- 계룡시 사회복지 전반적 특징으로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달체계의 부족과 문화·여가 향유를 위한 시설의 부족 등, 전반적으로 수요에 비해 복지·문화 등의 공급이 부족함을 지적함
- 대표적인 사례로 노인복지는 타 지역에 비해 잘 되고 있지만 청소년 및 아동복지 시스템이 부족함

○ 계룡시 사회복지에 있어 지역의 특수성

- 계룡시는 규모면에서 전국에서도 2번째로 작은 도시이고 직업 군인 거주 도시라는 특징이 있음
- 규모의 경제측면에서 기업 등 활용가능한 민간 자원이 부족함
-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잦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 인구가 증가세임

○ 젊은 층 인구 증가

- 계룡시는 2023년 기준, 충청권 인구증가율 1위. 계룡시는 특히 30대 인구 증가율이 11.3%를 기록하는 등 젊은 층 인구 증가가 눈에 띄어
- 청년이 계룡시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 등 보다 나은 정주 여건 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노령화 수준

- 2022년 기준, 계룡시 고령 인구는 5,141명(12.0%)로 충남도 전체로는 15위로 충남 전체에서 노령화 수준은 낮은 편임

03

타 지역 지역복지재단 운영 및 성과

1.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의 운영사례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 현황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역복지재단의 설립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됨
- 광역단위에서는 2003년 1월에 설립된 서울복지재단 그리고 기초단위에서는 2004년 7월에 설립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동작 복지재단이 시발점이 됨. 이어서 2005년 시흥시와 양천구에서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이 설립됨(신선웅, 2024)

<표 2> 지역복지재단 설립 현황

구분	복지재단명	계
광역자치단체	서울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부산복지개발원, 경북행복재단	4
기초 자치 단체 계	서울 강남복지재단,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구로희망복지재단, 노원교육복지재단, 동작복지재단, 양천사랑복지재단, 용산복지재단, 광진복지재단, 마포복지재단	9
	대구 달성복지재단	1
	인천 강화군복지재단, 옹진복지재단	2
	대전 유성구행복누리재단	1
	경기 김포시복지재단, 시흥시복지재단, 평택복지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남양주시복지재단	6
	강원 태백시복지재단	1
	충북 증평복지재단, 청주복지재단, 제천복지재단	3
	충남 당진시복지재단, 서산시복지재단,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천안시복지재단	4
	전남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담양군복지재단, 목포복지재단, 신안복지재단, 완도행복복지재단, 장흥군나눔복지재단	6
	경북 김천복지재단, 영덕복지재단	2
	경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김해시복지재단, 양산시복지재단, 진주시복지재단, 창원복지재단, 사천시복지·청소년복지재단	6
	계	41
합 계		45

출처 :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이란 무엇인가? 신선웅(2024)에서 수정

2. 천안시, 서산시, 당진시 복지재단 사업 분석

1) 천안시 복지재단

- 천안시 복지재단의 사업은 크게 ①취약계층 지원사업 ②복지시설 자원사업 ③지정 후원 및 특화 사업 ④조사연구 사업 ⑤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및 힐링문화활동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구별됨

① 천안형 취약계층 지원

○ 사업대상

- 다양한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천안시민[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상자/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단, 1인은 120% 이하]
- 천안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에 해당하며, 다양한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거주 외국인

② 복지시설 자원사업

○ 사업대상

-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천안시 소재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개인신고시설 포함)
- 천안시에서 민간에게 위탁하여 사회복지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 사업내용

- 복지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공모사업
- 복지시설 기능혁신사업
- 행복키움지원단 맞춤형복지지원사업

○ 지원항목 및 내용

<표 3> 천안시 복지재단 지원항목 및 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복지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공모사업복지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공모사업	○ 공모로 천안시 복지 관련 현안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욕구에 적극 대응 ○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천안시 맞춤형 복지 신사업모델 개발 ○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이슈 발굴 및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공모사업을 통한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복지시설 기능 혁신사업	○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효과적인 서비스제공 및 활동을 위한 개보수, 장비구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이용편의 증진· 복지서비스 질 개선
-행복키움지원단 맞춤형 복지지원사업	○ 31개읍면동 관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욕구를 반영한 맞춤형복지지원으로 대상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천 및 복지체감도 제고

③ 지정 후원 및 특화 사업

○ 사업대상

- 복지재단 배분관리 지침 및 기타 지원기관의 규정 등으로 인하여 지원 불가 및 제한이지만, 실제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상자 또는 실제 천안시 거주 확인가능자)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천안시민(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천안시 거주 외국인(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정한 자)
-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천안시 소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개인신고시설 포함)
- 천안시에서 민간에게 위탁하여 사회복지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 기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심의 의결한 대상자

○ 사업내용

- 복지사각지대 제로 긴급지원
- 브릿지 맞춤형 특화지원 [저소득청소년문화예술지원/출산율 향상 지원]
- 복지기관 맞춤형 포털지원

④ 천안형 복지 조사 연구

- 천안시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천안시와 유관기관, 복지기관, 연구기관 등과 협력

○ 사업대상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주체 : 천안시복지재단 정책경영팀<공동연구>
 - 유관기관(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 복지기관(복지관 및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 연구기관(대학산학협력단, 국공립 연구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 등)

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및 힐링문화활동 지원

-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업무 수월성을 제고
 - 힐링 및 문화활동 지원을 통한 업무소진 예방 및 사기진작을 역량강화 사업과 병행

2) 서산시 복지재단

- 서산시 복지재단 사업은 크게 ①복지사업과 ②모금사업③ 사회복지 시설 운영으로 나눌 수 있음
 - 복지사업은 다시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협력사업,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으로 세분됨

① 복지사업

가.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협력사업

-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회복지 시설 또는 기관에 보급하여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사업내용
 - 복지시설 공모사업
 -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 복지누리의 날 행사
 - 온라인 노무상담 서비스

나.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사업

-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더 나은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종사자
- 사업내용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 복지시설 종사자 힐링박스 지원사업
 - 복지시설 종사자 배움지원사업
 - 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캠프
 - 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 서산시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부응하는 통합적 복지 허브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과 함께 “더 행복한 내일을 열어가는 서산”을 만들기 위하여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0%이하
- 사업내용
 -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지원사업
 - 아동·청소년 소망 우체통 사업
 - 장애인 및 노인성 질환자 기저귀 지원사업
 - 독거노인 생필품, 건강음료 지원사업
 -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 책상 지원사업, 생필품 지원사업, 명절 지원사업 등 배분사업

② 모금사업

○ 사업내용

- 정기기부자 발굴 「3,000원의 행복」 사업
 - 서산시민의 자발적 모금을 위해 3,000원의 행복 희망나눔 캠페인 실시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CMS 자동결제 되는 정기후원 방법
- 기업사회공헌 「서산 기업체와 함께하는 틈새가정지원」 사업
 -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원기업을 연계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의 틈새가정을 지원하는 지원체계 구축
- 희망 나눔 저금통 사업 「나눔 가게」 사업
 - 관내 관공서 및 지역상점을 대상으로 희망 나눔 저금통을 설치하여 서산시민의 자발적인 모금 활성화

③ 사회복지시설 운영

○ 서산문화복지센터를 비롯 10개의 서산시 관내 사회복지 시설 운영

-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미청소년문화의집, 서산시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성연청소년문화의 집, 다함께돌봄부석센터, 다함께돌봄운산센터, 다함께돌봄석림센터 등 시설 운영

3) 당진시 복지재단

- 당진시 복지재단 사업은 모금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사업, 아동 나눔 사업, 조사연구 사업 등으로 분류됨

① 모금 및 나눔 사업

○ 사업내용

- 당진시는 기부자와 기부처를 발굴하여 나눔 문화 확산
 - 당진시복지재단은 당진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와 기부처를 개발하고 지정 기부금을 모집

② 역량강화사업

○ 사업내용

-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 및 포럼 운영
 - 당진시복지재단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테마별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 포럼 운영

③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 사업내용

- 당진시 소재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교육 실시
(법정의 무교육/직무교육/자기 계발 교육)

④ 아동 나눔 교육

○ 사업내용

- 아동에게 나눔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인형극, 퍼즐놀이, 동화구연 등을 통한 나눔 교육 실시

⑤ 연구사업

○ 사업내용

- 현장 중심 복지정책과 당진시만의 프로그램을 개발 : 당진시복지재단은 당진시의 복지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맞춰 현장 중심 복지정책과 당진시만의 프로그램을 개발

○ 사업내용

- 복지 포럼 : 당진시 사회복지 이슈를 활용하여 주제별 포럼 실시

<표 4> 복지재단 분석: 천안, 서산, 당진

구분	천안시복지재단	서산시복지재단	당진시복지재단
설립	2016년	2011년	2012년
조직	•9명(상임이사1, 직원8명) •정책경영팀, 행복천사팀, 복지지원팀	•9명(대표이사1, 직원8명) •경영지원팀, 사업운영팀	•9명(이사장1, 직원8명) •경영지원팀, 운영지원팀, 복지사업팀
주요 사업	•취약계층 지원 •복지시설 자원사업 •지정 후원 및 특화산업 (모금사업) •복지조사연구 •종사자 역량강화 및 힐링문화활동 지원	•복지시설 간 연계·협력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취약계층 지원 •복지포럼 개최 •연구사업 •시설운영사업	•모금 및 나눔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복지포럼 개최 •연구사업 •시설운영사업
수탁 운영시설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미청소년문화의집 •서산시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성연청소년문화의집 •다함께돌봄부식센터 •다함께돌봄대산센터 •다함께돌봄운산센터 •다함께돌봄석립센터	•당진시종합복지타운 •다기능을 갖춘 당진시복지타운은 2개의 복지관과 9개의 개별 복지서비스 기관이 입주하여 공동체 형태로 운영
특징	•천안시 복지재단은 모금 위주의 사업을 진행함 •천안시는 연구사업 수행을 복지재단이 직접하기 보다 외부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식임 •모금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사업 진행	•사회복지 시설운영 위주의 복지재단 •모금사업 비중,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사회복지시설운영 위주의 복지재단 •비중있는 모금사업 진행

3. 증평복지재단 사례

○ 연혁 및 조직구성

- 설립근거 : 민법 제 32조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 4조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3조
- 설립형태 : 비영리공익법인
- 개원 : 2009년 7월 1일
- 기본재산 : 21억원의 군 출연금
- 조직구성 : 이사회 : 13명 이사(이사 11/ 선임직 8, 당연직 3/ 감사2)
인사위원회 : 7명(위원장 1, 위촉직 4, 당연직2)
재단사무국 : 1국 1과 4명

○ 사업내용

- 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사업 및 시설 수탁운영
-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및 증평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특징

- 2009년 7월에 당시 군수의 주도권으로 설립됨
-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현재 21억원의 군 출연금으로 운영
- 조직구성은 이사회 13명, 재단사무국 4명이 있고 이 중 1명은 증평군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임
- 증평복지재단의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증평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증평군장애인복지관, 증평군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증평군노인복지관, 증평군노인전문요양원 등 6개 시설의 수탁 운영임

- 증평복지재단은 전형적인 사회복지시설 수탁 및 운영 복지재단임
- 그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전에 증평군은 선제적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복지시설 수탁 및 운영, 따라서 기존 시설과의 갈등 관계가 생겨날 수 없는 구조임
- 증평복지재단은 인구나 규모 면에서는 계룡시와 유사하다 할 수 있지만, 그 역사와 환경은 많이 다른 것이 현실임

04

계룡시 사회복지종사자 인식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방법

- 사회복지 관련 영역에서 활동 중인 계룡시 사회복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
 - 인터뷰는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이에 관한 내용을 요구사항별로 정리하는 형식으로 진행

가. 목적 : 계룡시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사회복지종사자 의견 수렴

나. 기간 : 2024년 5월 21일

다. 대상 : 계룡시 사회복지종사자

라. 내용

- 계룡시 사회복지 인프라와 민관 협력 정도
- 계룡 복지재단 설립 인식
- 계룡 복지재단 역할

2. 자료 분석

1) 계룡시 복지환경

○ 계룡시 복지 인프라 정도

- 장애인복지관 등이 부재하나 전반적으로는 노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정협회, 아동센터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거점이 조성됨
- 문화시설이 부족함

- 선별적 복지욕구는 충족시키고 있으나 보편적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움. 대도시의 작은 구 느낌이라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음
- 기관 단체를 계속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했던 지역의 경험이 적음
- 여성,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80% 정도는 구축되어 있다고 사료됨

○ 계룡시 사회복지에 있어 민간-공공 거버넌스 정도

- 민간·공공간 거버넌스에 관하여서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됨.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는 조사됨
- 사회복지 협력에 있어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뒤따른다는 의견이 제시됨
- 복지재단 건립의 찬성이유로 민간주도의 협력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의견도 있었음

- 작은 도시라 적절한 소통이 되고 있지만 지엽적이고 근시안적인 모습이 유지된다. 좀더 인구가 늘고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 그에 따른 민간-공공 거버넌스도 더 발전해나가야 될 것임
- 시민들의 수요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 회의 등의 운영으로 민간과 공공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
- 2003년 9월 개청 이후 복지시설 인프라도 부족하고, 새로운 기관 및 시설 등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장기간 공공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임. 그러나 최근 몇 년은 복지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임.
- 민·관의 협력이 잘되고 있음
- 공공이 중심이 되며 공공의 내용에 따라 거버넌스의 질이 달라짐. 민간은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활동력이 담보되기도 함

○ 계룡시에서 사회복지 업무 수행 중 애로사항

- 사회복지 업무 수행 중 애로사항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대표적인 것으로는 계룡시가 적은 인구와 면적으로 인한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됨

-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스템이라 좀더 다양한 재원확보를 위한 공모사업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함
- 노인일자리에서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있으나, 공공시설과 대학, 기업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일자리 개발의 어려움이 있음
- 인력의 부족: 잦은 인사이동 및 인력의 잦은 교체, 혹은 오래 고정된 인력
- 민간 사회복지직 양질의 일자리로 정착
- 정책 방향이 권력과 목소리가 큰 사람 위주의 행정으로 쏠리는 경향 발생
- 민·민 간의 협력, 자원 및 사례 공유 부족
-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사업비 부족
- 적은 인구와 면적으로 인한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 면적이 넓은 도시가 아니므로 기관의 특성상 내담자들이 방문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음
- 적은 면적과 시민의 유착관계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 건수가 적어 피해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음

○ 계룡시 사회복지 영역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 해야 할 과제

- 장애인복지관, 문화인프라 등의 시설확충과 활용가능한 복지기금과 인력 등을 제시하는 의견이 많았음
- 아동복지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됨

- 아동복지에 관한 지원이 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함
- 민간의 사업 주도력과 다양한 민간 주체
- 복지인프라 개발을 위한 복지기금과 인력이 부족함
- 장애인복지관의 부재
- 문화인프라 확충
- 노인인구 증가로 독거노인의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룡시가 노인복지에 힘쓰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들의 능력을 활용한 복지 활성화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제5기 계룡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르면 우리시에서 점진 노력해야하는 영역이 교육, 기초생활유지,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문화영역, 법률 및 권익보장이라고 조사됨

2) 계룡 복지재단 설립 인식

○ 찬성하는 이유

- 계룡시 복지재단 설립에 찬성하는 이유로 공공과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민간의 전문성과 인력 확보가 필요함
- 복지재단 설립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공공과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민간의 전문성과 인력 확보
- 복지재단 설립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

○ 반대하는 이유

- 복지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찬성하는 이유보다 더 많았고 이유도 체계적으로 제시됨
- 반대의 이유로는 크게 1) 타 기관과의 업무중복 2) 재단의 주요 기능인 연구, 모금, 시설 운영의 사실상 불가함 3) 계룡시가 복지재단을 설립하기에 예산이나 규모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의견이었음
- 복지재단 설립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 타 시군구 복지재단의 업무를 살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업무의 중복이 이루어지고 있음. 시·도별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살펴보면, 복지재단의 업무와 중복이 이루어지는데, 상기한 2개 기관을 통합하는 추세임
- 이미 각 분야 및 계층을 위한 거점기관(복지관, 센터 등)이 설립되어 있고 각 분야에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음, 비슷한 역할의 기관을 설립한다면 역할 및 자원분배에서의 갈등, 인력 및 운영비용 투입에 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됨. 복지재단 설립 비용을 기존의 거점기관에 투입, 민과 관, 민과 민이 더욱 긴밀히 협조하고 기존 복지망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 복지재단의 주요기능 3가지(연구, 모금 및 배분, 시설위탁)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긴 경제적 효율성 낮음
- 지자체 복지재단의 경우 주로 모금 및 배분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관내 대기업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있는 자원을 나눠 운영하는 방식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이지 않음
- 또한 기존 사회복지시설도 위탁 운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위탁을 기피하는 시설이 없는 실정임. 민·관 상생을 위해선 복지재단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사료 됨
- 계룡시는 복지재단을 두어야 할 정도의 자원(인구, 예산,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는지 잘 모르겠음
- 복지재단을 두고 있는 지역의 기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자체장의 복지 마인드에 따라서 복지재단 운영 방침이 바뀐다고 한다. 혹여 복지재단을 통해 복지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걱정됨
-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진행 사업이 기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업들이라면 중복 사업으로 예산 낭비가 클 것 같음

3) 계룡시 복지재단의 역할

○ 계룡시 복지재단의 역할

- 응답자들은 주로 계룡시 복지재단의 역할로 ① 정책개발 및 연구 ② 지역사회자원(기부금)의 모금과 배분을 가장 많이 거론함
- 이 밖에도 종사자 교육·훈련 조사, 정보 및 데이터 구축을 제시함
- 대면으로 진행된 인터뷰 조사에서는 복지재단의 역할로 연구사업이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됨. 일례로 복지재단이 계룡시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는 응답이 많았음

○ 복지재단 설립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 복지재단 설립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관한 질문에는 긍정과 부정의 답변이 교차함
-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사회복지 사업실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력
-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지자체의 예산 부담과 전문적인 복지재단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음을 제시함

- 사회복지 양질의 사업 실시로 복지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력
- 시 출연자금 이외 추가 모금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늘고 전문적인 복지재단 역할 기대하기 어려움
- 해게모니가 새로 생기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염려의 시선으로 볼수도 있음. 민관거버넌스의 향상된 질로 잘 계획 된 것으로 희망함

1. 기초지자체 출연 복지재단의 기능

○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의 기능

- 정원희 외(2020)의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의 사업범위는 조사·연구, 교육·컨설팅, 민관협력 및 네트워킹,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지자체 시설 운영, 기타 위탁사업 등이나 지자체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재단의 역할 및 주요 사업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복지재단 설립의 법률적 근거

- 지자체 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복지재단의 운영은 자치단체별 조례로 규정
- 관련 법령은 2023년 1월 19일자로 개정됨
- 계룡시 역시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기초해 현시점에서 설립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례에 따른 복지재단의 사업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복지재단의 사업은 ①조사·연구 ②중장기 계획 수립 ③사회복지 인력 관리·교육 ④네트워킹 ⑤시설 관리·지원 ⑥시설 설치·운영 ⑦기부문화 조성 및 자원 발굴·배분 ⑧보조금 교부 지원과 기금 관리 ⑨위·수탁 사업 ⑩프로그램 개발·지원 ⑪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관리 ⑫자료 개발·보급 ⑬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권리 옹호·지원 ⑭기타 사회복지사업 ⑮수탁기관 심의·선정 등 총 15개로 구분할 수 있음(충청남도, 2015)

- －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평균 6.4개의 사업을 조례에 명시. 가장 많이 명시한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 · 지원과 네트워킹으로,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의 역할이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밀접한 관계 맺기와 지원임을 알 수 있음(충청남도,2015)

<표 5> 복지재단 역할 및 기능 비교

구분	광역단체	기초단체
기본 역할 및 기능	■ 사회복지정책·사업 조사연구개발 및 시설 평가 인증 ■ 사회복지사업 수행 매뉴얼 개발 및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매뉴얼 교육 ■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위탁한 수행·관리	■ 지자체차원 민간자원 모집·관리·배분 ■ 취약계층지원사업 직접 수행 ■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요 공통사업	■ 지자체 사회복지정책·사업에 대한 조사·연구·개발 ■ 민간부문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교류 및 협력 ■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컨설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업매뉴얼 교육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대상 중앙정부 사회복지 정책 및 국고보조사업 교육	■ 민간부문 복지자원 발굴 ■ 민간의 후원금/기부금품 모집·접수·배분 지원 ■ 지역사회에서 기부문화 확산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사업 수행 ■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 수탁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교부액 심사 지원 ■ 복지시설의 수탁기관 심의·선정기준 개발 및 평가 ■ 민·관 복지서비스 기관 네트워킹 및 복지 시설간 협력지원
기타사업	■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 ■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 관련 심의지원 ■ 복지재단기금 관리 및 운용 ■ 복지모형 창출 및 도민참여형 복지활동 모색 ■ 장애인전환서비스 관련 시설 운영 ■ 사회복지회관 운영 ■ 사회복지시설 운영	■ 장학사업 ■ 자원봉사센터 운영 ■ 신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개발·실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복지시설 컨설팅 ■ 청소년상담 관련 사업 운영 ■ 긴급구호사업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지원 사업 ■ 콜센터 운영 ■ 통합사례관리 ■ 노인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 ■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자료 : 충남도 복지재단 설립 연구. 2015.

- 평택복지재단 (2016)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의 핵심 역할은 모금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주 모금과 배분 기능이 가장 중시되고 있음
- 손선옥 외(2017)도 복지재단의 지속가능성은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활동에 있다고 주장
-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의 핵심 역할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금과 배분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모금 사업 이외에도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의 주 사업내용은 시설위탁운영과 연구임

- 기초지자체 출연 복지재단의 주요 기능별로 유형화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6> 주요 기능에 따른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의 유형별 분류

시설수탁운영중심	모금 및 나눔 중심	연구중심
■ 증평복지재단 ■ 가평군복지재단 ■ 서산시복지재단 ■ 당진시복지재단	■ 천안시복지재단 ■ 가평군복지재단 ■ 서산시복지재단 ■ 당진시복지재단	■ 청주복지재단 ■ 광진복지재단 ■ 창원복지재단 ■ 평택복지재단 ■ 화성시 복지재단

2. 계룡시 복지재단의 기능 검토

○ 계룡시 복지재단의 시설위탁 운영

- 계룡시 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운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계룡시민들의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원론적으로는 계룡시 복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을 재단의 전문 인력들이 지닌 노하우를 기반으로 수탁받아 운영한다면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 등 세대별·연령별·대상별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음
-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을 복지재단에서 맡으면 민간은 복지재단을 경쟁자로 인식해 반발과 불만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쟁하는 순간 민과 관의 가교 역할과 네트워킹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 현실적으로는 기존 법인과 역할중복과 옥상옥으로 사실상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 기능은 증평복지재단처럼 사회복지 시설이 생겨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야 했음

○ 사회복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배분: 사업기부금 모금 및 나눔

- 급증하는 회복지 수요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복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배분 사업이 필요함
- 복지재단은 다양한 기부자로부터 광범위하게 지원을 받아 지역자원을 형성하고 기부자의 자선 목적을 만족하도록 지역사회 내에 단순히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음
- 모금사업은 이미 수행하는 조직이 있고 계룡시는 대기업 등이 부재하고 민간 자원이 부족하므로 본격적인 모금사업 전개가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됨

○ 연구 및 조사 사업

- 연구사업은 종사자 인터뷰 조사에서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첫째, 복지재단의 기능으로 연구사업을 하는 지역은 예산이 비교적 풍부하고 규모가 중소도시 이상 지역임
- 계룡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115위인 도시로 아직은 연구사업을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연구사업을 표방하는 천안시 복지재단이나 증평군 복지재단은 자체 인력으로 연구사업을 하지 않고 외부위탁(천안시)이나 외부의 연구기관과 연합하여 연구조성(증평군)을 진행하고 있음
- 둘째, 시설 운영이나 모금사업 위주의 복지재단은 학사인력만으로도 재단 운영 가능함. 연구사업을 위해서는 석·박사 인력을 채용해야 하나 예산상 집행하기 어려움
- 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구주제가 주기적으로 생성되어야 함. 가령,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무리임
- 간헐적인 연구는 지금처럼 충남도 산하 연구기관(충남연구원,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등)에 의뢰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

- 계룡시에서 전문 인력을 두고 연구사업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고 외부 기관에 용역을 위임하거나 연구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임
-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요청하는 것은 복지재단의 설립 없이도 가능한 일임

3. 계룡시 복지재단 설립의 장단점 분석

1) 계룡시 복지재단 설립의 장점

○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젊은 층의 급증과 문화·여가에 대한 갈증으로 최근 계룡시의 복지 욕구는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음. 계룡시 복지재단은 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지역 유관기관과 네트워킹 강화

- 복지재단은 통합적인 정보제공의 주체가 될 수 있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들 간의 연계를 통한 정보제공으로 이용자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 동일 사업영역 내에서의 민간기관 간의 네트워크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지역 내에서 다양한 기관 간의 네트워크는 아직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역할을 복지재단이 수행함으로써 민간기관 입장에서 상이한 사업 기관 간의 중복적인 서비스 제공 예방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음
- 지역사회 민간/민관 네트워크의 강화 역할을 주축으로 수행함으로써 복지재단은 현 사회복지전달체계 상의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2) 계룡시 복지재단 설립의 단점

○ 예산의 문제

- 복지재단이 설립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간 운영경비와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함(문정화 외, 2023)

- 대부분의 복지재단은 재단의 시설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도록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음(문정화 외, 2023)
- 광역자치단체 복지재단의 경우 인력과 사업이 방대한 만큼 75억 원에서 5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14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 됨 (문정화 외, 2023)
- 계룡시 복지재단은 매년 17억에서 20억 원 정도의 출연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광산구, 2023)
- 복지재단의 운영은 이렇듯 상당한 기본자산 및 연간 운영비를 투입해야 하나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가 산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기초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이 증가하고 있지만 계룡시 복지재단 설립이 규모 있는 세금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복지재단 설립은 지역사회 의견 수렴 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 매년 받아야 하는 계룡시와 의회의 감사도 재단설립 전 신중하게 고려해볼 사항임(참고로 증평군복지재단은 충청북도의 감사도 받고 있음)

○ 타 사회복지 관계기관과의 기능 중복 및 옥상옥

- 다른 지역에서 복지재단 설립 당시와 설립 이후에도 재단설립을 통해 민간사회복지 기관들과의 기능 및 역할중복과 그에 따른 옥상옥(屋上屋)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음
- 가령, 지역에서의 민간기부문화 활성화 및 민간재원 조성과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지재단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 이처럼 복지재단의 설립은 민간 사회복지조직과의 기능과 역할중복이 우려됨
- 남양주시 복지재단 역시 설립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끊임없는 잡음이 일었는데, 가장 비판적인 시각으로는 실효성 문제와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기관의 반대였음(신선웅, 2024)
- 반대하는 측에서는 복지재단 설립 신청 반려 탄원을 경기도에 요구하기도 했음(신선웅, 2024)

3) 계룡시 복지재단의 기능과 장단점 분석의 결론

○ 기존 사회복지 기관의 역할 강화

- 계룡시 복지재단의 주요 기능설정과 설립의 장단점을 고려해볼 때 복지재단을 새롭게 신설하기보다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
- 민간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할 때는 민간 영역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기능을 복지재단에서 수행해야 하는데 계룡시 환경을 분석해 보면 기초자치제 복지재단의 주요 기능 중 한 가지도 충족이 어려운 현실임
- 연구의 결과로 계룡시는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의 3가지 주요 기능인 사설운영, 모금 및 배분, 연구사업을 복지재단을 통하여 수행하기보다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기존 사회복지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복지재단 설립의 이유도 민간 기능 강화나 복지조직 간 네트워킹 강화이므로 복지재단을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

참 고 자 료

- 광산구. 2023. 광산복지재단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 계룡시. 2022. 계룡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 김승권 외. 2012. 지역복지개발 평가센터 운영보고서
- 신성웅. 2024.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이란 무엇인가.
- 아산시. 2018. 제4기 아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 문정화 외. 2023 . 고양복지재단의 필요성과 설립 방안.
- 충청남도 . 2015. 충청남도 복지 재단 설립 연구.